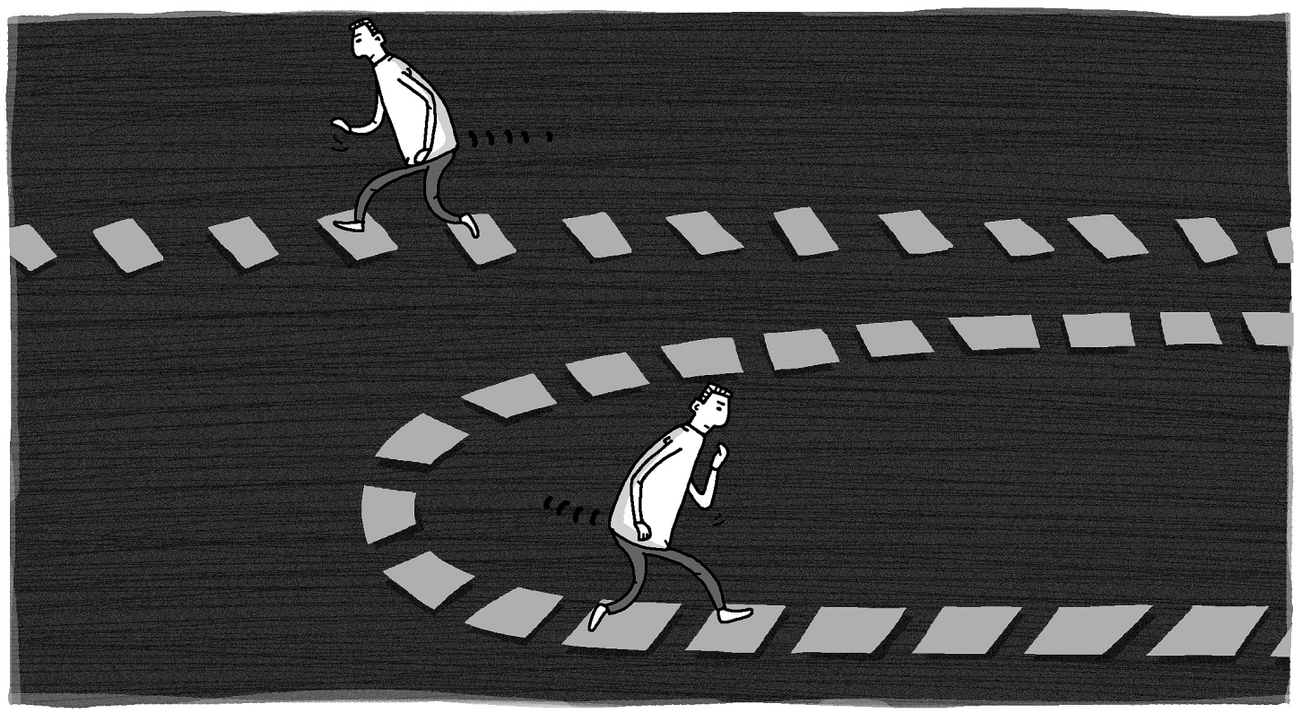
하나하나를 좀 더 넓게 보고 넓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물건들이 다 문이 되고, 또 부닥침이 다 문이 되지마는, 그래서 자기의 그 환경에 따라서 공부도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마는 근본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고 든다는 그 자체는 말입니다.

사람이 올바로 가다가도 잘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단이 생기는 수가 있고 더딜 수가 있고요. 빠르다 하는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것이 천체가 한데 돌아가는 그런 이치는 못 되는 수가 많거든. 이것이 천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첫째, 둘이 아님을 알아서…. 그것을 사량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항상 말하죠. 인간의 육신이 탄생을 했으면 바로 마음 자체가 탄생을 해야 한다고요. 마음 자체가 탄생을 했다 하면 점차적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야 한다고. 그리고 또 자랐으면 거기에서 너와 나와 둘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둘이 아님을 알았으면 그때 가서 둘이 아니게 서로 나툴 줄 알아야 하고, 둘이 아니게 같이 한자리에서 결정을 지을 줄 알아야 하고, 또 결정을 지었으면 같이 한 점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한마음입니다. 이 뜻이 말로 할 때는 아주 얍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주를 굴릴 수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니 자재력이라 하는 것, 자동적이라 하는 것, 자동 용(用)이라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긴 하나 그 자동 용은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의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 법이 이렇다, 진리가 이렇다 하는 거는 이건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의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인간이 사는 걸 진리라고 하면서 '평등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평등 진리에서 살아나가는 데에 요모조모 살아나가고 요모조모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도리로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뿐만 아니라 진실로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주의 개발이라는 자체도 또는 세계적인 개발이라는 자체도, 즉 말하자면 하생의 진화력과 개발이라는 말도 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남 듣기 좋으라고 보통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린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억겁을 통해서 거쳐 나온 피 한 방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그 한 방울을 그냥, 그냥 넘길 수는 없죠. 이거는 너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진한 한 방울이기 때문에 그 한 방울이 진하게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게끔 되는 것이 인간의 참마음이며, 고독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것이 한데 합쳐진 아주 진한 피 한 방울이라는 얘깁니다.


그림 · 최주현

그 진한 피 한 방울은 어디에도 속하게 되고 어디에고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동 용인 거죠. 한마음의 자동 용이라는 것은 내가 한다 네가 한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있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치를 알아냈고, 내가 있음으로써 그렇게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위대하게 한마음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긴 하나, 그 한마음을 걷어잡고 작용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외국에서 수많은 좋은 기계를 한국에 갖다 놨다 해도 그 기계를 돌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리학이나 전체적인 그것을 내가 연구해서 다 안 사람이라야 어느 기계를 갖다 놔도 그걸 조금도 거침없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그 능력이 바로 자동 용이죠.

말을 하는데 콧구멍이 가려워요. 이 콧구멍이 가려운데 말이에요, 긁지 않고는 못 배기거든요. 그런데 이 콧구멍을 긁으면 속 콧구멍은 거꾸로 돼 있어서 말이에요, 이게 긁는 콧구멍은 바로 뚫렸다고 하나 그게 거꾸로 뚫린 거거든요. 그런데 둘 다 쓸모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한테 이것이 아니다, 기다 하는 그 습관성, 그 습을 다 놔라 하는 것은, 어떤 데고 환경에 따라서 조리 있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되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걸 떠나서, 고정관념으로서 그 습에 묻혀 있지 말고, 환경에 따라서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환경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환경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응용해서 활용을 할 줄 알아야만이 '이거다, 저거다'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자유스럽게,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습성 없는, 고정됨이 없는 그런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전 우주의 그 자동적인 활용을 그대로 하면서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삶의 보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성이라는 혹성에도 습도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온도의 조절이라든가 가스의 조절이라든가 그런 모든 문제 등등을 한데 합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아니 생명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에너지로 변질되고야 만다는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거기에다가 한 역량,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말할 때 흔백이라고도 하고 씨라고도 합니다마는 그런 영식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 줄 수 있어야 하고 심어 주면 자랄 수 있는 역량의 바탕이 돼 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여러 모로 할 줄 알아야만이 우주의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우린 인간의 생명을 존엄성 있게 보호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리고 서로서로 한마음으로서 살고 있다는 이 점을 예전부터도 항시 해 내려왔죠. 어저께도 잠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우주적인 개발과 세계적인 개발 또는 곤충에 이르기까지 개발을 원하고 있는, 이 전체 대천세계로부터 소천세계 중천세계가 한데 합쳐진 한 점의 근원이 이날까지 이렇게 성을 이루고 또는 분배를 해서 나누고 또 주워 담고 또 나누고 하면서 개발을 해서 인간의 형성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인간의 형성까지 올려놓은, 그 형성된 참된 인간으로서 아주 참되게 진미를 알고 사랑을 알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런 삶의 보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형성까지 이루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바라고 있는 우주적인 근본 하나의 그 뜻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라고 있는 그 한 점의 뜻이 우리를 이렇게 형성시켰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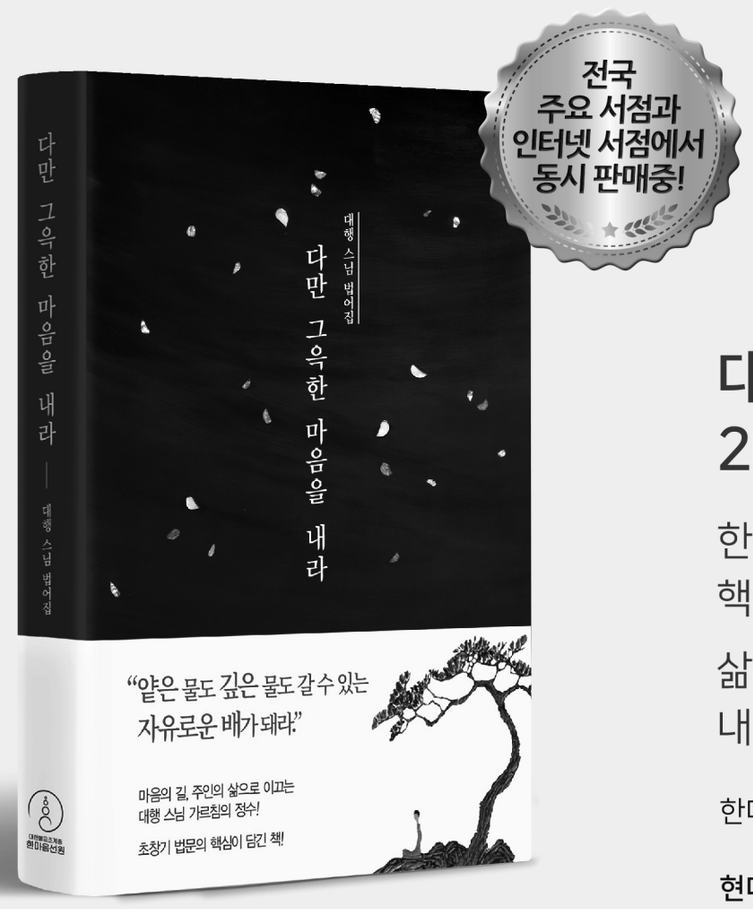
그럼 한 점의 그 뜻은 거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우주와 더불어 같이, 어떠한 물질이든 어떠한 불성이든 다 똑같이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걸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여러분이 안팎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들어서 옮겨 놓을 수가 없고, 한번 생각할 수가 없고, 한번 굴릴 수가 없고, 한번 실천에 옮길 수가 없는 위치에서 이날까지 우리가 해 왔을 때에 전자에 공부하신, 선맥을 이어서 공부하신 대덕들과 더불어 인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거죠.

나는 한 점의 우주와 더불어, 즉 말하자면 대천세계와 더불어 하천세계까지 전부 합쳐진 한 점의 그 근원에 의해서, 나는 오관을 통해서 시대가 이러이러하니깐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내 줄 수 있다면, 서로가 합일점으로 돌아가면 그대로, 역량의 양식은 그대로 심어지는 거고 우주적으로도 개발이 되는 거고 세계적으로도 개발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소릴 하는 것을 소리로만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실천에 옮겨졌을 때 '아! 그때 그이가 그렇게 말을 하더니 이게 말이 아니라 실천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서야 짐작을 하지, 지금은 '저이가 저런 설법을 하고 있구나!' 이거에 그치고 말 겁니다. 나는 그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이 뭐냐. 그 한마음의 뜻을,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자동 용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 피를 흘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공한 내 이 몸뚱이가 갈갈이 흩어져서 만약에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자존심이 꺾이는 일인지 모릅니다마는 우린 한마음의 뜻입니다. 너와 내가 따로 있는 한마음이 아니라 바로 같이 한자리의 한마음, 자동적으로 한 용이란 얘깁니다.

☞ 18면으로 계속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